



에비시장학교를 통한 결혼문화의 회복

☪ 합승에 (전인교육연구소 소장)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을 살펴보면, 모든 삶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곤 한다. 모두 어디를 향해 그토록 바빠 달리는지 생각해 볼 겨를조차 없이 옆 사람이 달려나갈 뒤통스런 느낌이 없더라도 함께 달려가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 듯싶다.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도 많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순령어리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결혼문화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문화가 세속적인 결혼문화와 달라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결혼문화는 어떠한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혼 당사자나 그들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세계관의 부재

실제로 주변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을 자주 본다. 배우자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혼수 문제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결혼을 앞두고서는 믿음은 따로 출장 보내고 세속적인 기준이 모든 결정의 잣대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모순된 결혼문화는 삶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독교 세계관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본다.

헨크 헤르세머(Henk Geertsema)는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하나는 관계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단순히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어떠한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시각이라는 점이다. 즉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에게 반응함으로써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다른 것과 비교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현실 가운데서 창조주의 관점을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자신과 세계에 대한 바른 의미와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과 예수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됨의 관계성을 인식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에비시장학교

세속적인 결혼문화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차별화된 그리스도인 결혼문화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다.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시도한 바 있는 에비시장학교다. 이 학교는 그리스도인 결혼문화를 세워나가기 위해 결혼 전례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비 장은 예비 시아버지, 시어머니, 예비 장인, 장모의 첫 자리를 따서 만든 용어이다. 이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우선적 교육은 기독교세계관 교육이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다. 그것은 가정을 최초로 설계하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며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혼할 때를 만나는 과정부터 시작하여 새 가정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가정이다.

세속적 만남은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건에 따른 만남이다. 좀 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조건이 변할 때는 머뭇거리지 않고 헤어지고 결혼도 파국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시장학교는 다른 관점을 추구한다. 자녀의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세속적 조건(나이, 배경, 학벌, 재산, 가문 등)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선한다. 자녀 역시 결혼예비학교를 통해 같은 맥락의 교육을 받는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 주라는 사실과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드시기로 친히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최초의 증배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의 인도를 받아 세속적인 가치 기준이 아닌 믿음의 비전을 따라 배필을 구하게 된다.



최고의 혼수를 선택한 사람들

실제 예비시장학교를 마치고 나서 자녀를 출가시킨 분들이 많이 있다. 그 가운데 한 사례를 들면 혼수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한 경우가 있다. 혼수를 해오는 대신 주일마다 부모와 함께 같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었다. 이 가정의 경우 최소한의 살림살이만 장만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주일마다 부모와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신앙이 전수 되도록 명령하셨다(신 6:4-9).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생활 속에 어떤 의미인지를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 가르치도록 말씀하셨다. 이 가정은 주일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식사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 없이 소통이 잘 되어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예단에 관한 부담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예단을 해오는 대신 결혼한 다음에 부부가 함께 성실하게 교회 봉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이 제안 역시 신부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서 결혼 후에 열심히 부부가 함께 교회 봉사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다.

결혼은 언약이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녀 사이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점에서 의무적인 성격을 띤 소명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결혼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 나가기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고귀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가정은 모든 악덕과 노함과 분별과 피드는 것과 웨망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엡 4:31-32).

주후 1세기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의 세계에 미친 가장 큰 영향력은 다름 아닌 시로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다. 이 사랑은 기쁨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다(요일 4:20). 결혼을 통해 조화로운 가정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된 하나님의 사랑이다(롬 5:5). 오직 이 사랑이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하며 모든 악의 세력들을 방어하는 안전장치이다.

떠남과 연합

예비시장학교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는 고부갈등과 장사갈등의 원천적 예방 원리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갈등은 구조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조차도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결혼이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한 절차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손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중요한 교유의 장이 가정이며 그 시작은 모태에서부터 비롯된다. 손자·손녀를 싫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겠는가? 손자·손녀를 사랑한다면 그 귀여운 손자·손녀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마느리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가장 많은 영향력이 어머니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예비시장학교에서는 결혼과 가정의 중요한 양상이 '떠남과 연합'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적절하게 떠날 때만이 책임 있게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남편과 아내의 두 개의 개체가 아니라 한 몸이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창 2:24)." 이는 부모를 떠나 온전한 친밀성과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의도라는 사실이다. 실제 결혼생활에서 부모로부터 떠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합하지 못하는 젊은 커플들이 많다. 과거에는 부모 쪽에서 떠나보내지 못해 자녀세대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해 부모로부터 떠남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나친 권잉보호로 인해 결혼한 이후에도 마마보이나 마마같이 돼서 떠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비시장학교는 이와같이 결혼 직영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둘러싸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세속적인 결혼문화에 비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차별화된 기독교 스타일의 결혼문화를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자녀를 잉태할 때부터 결혼 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기독교 가정의 본질적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통로가 되는 것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은 세 상에서 '제자의 직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결혼문화에도 기독교적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함승애 서울대학교(B.A.)를 거쳐 고신대학교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M.A., Ph. D)에서 석사를 전공하였다. 동성교회 교육전담 전도사로 10년간 섬겼으며, 현재 동성기독교상담실 상담실장, 여의도순복음성교회, 진영교 유년군수 소장, 삼미상담 전문가, 진로상담 전문가, 기독교상담 전문가이자 고신대학교 교수이다.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길 소망하는 사람이다.